

박상훈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공통의 믿음 잃고 갈라진 공동체는 죽음 피할 수 없어

박상훈
정치학자



우리 정부가 아니라 너희 정부,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너희 대통령이 나올 상황을 걱정한다면, '리바이어던'을 읽어야 한다. 당시는 내란과 내전이 교차하던 시대였다. "같은 것을 놓고 한쪽에서는 '지혜'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포'라 하며, 한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쪽은 '잔혹'이라며" 끝도 없는 싸움을 이어가던 때였다.

이성도 합리성도 다정함도 환대도 자신들의 당파 안에서만 가능했다. 한쪽에서는 선(善)을 대표하는 이가 다른 쪽에서는 악(惡)을 상징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오히려 슬픔의 원인이 될 뿐"인 세상이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공손한 인간"으로 알려진 홉스가 대담한 발상을 했다.

의심과 혐오, 적의와 공포를 버릴 수 없다면 이것들을 질료 삼아 새로운 평화 기획을 해낼 수는 없을까? 모두의 자유를 최대화할 때 직면할 고통의 "자연 상태"를 논증해 보임으로써, 서로에 대한 예의와 정중함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리바이어던' 이야기는 표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목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이자 "인간의 오만을 다스리는 왕"이다. 공동체를 분열로 이끄는 그 누구의 오만함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표지 맨 위 작은 글씨로 쓴 성경 구절("지상에 더 힘센 이 없으니, 누가 그와 대적하라")은 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리바이어던은 곧 국가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를 말하고 '지배'를 논했다면 홉스는 '국가'를 말하며 '평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만큼의 자유, 즉 '평등한 자유'에 만족하지는 것이 그 핵심이다. 괴물을 불러와 동료 시민들에게 도덕과 신의의 회복을 제안하는 홉스의 평화 국가론은 흥미롭다.

‘평등한 자유’에 만족하지는 것이 핵심

통치자의 몸을 보라. 수많은 개인으로 채워져 있다. 국가는 신의 섭리나 자연적 권력이 아닌, 우리가 합의한 결과임을 뜻한다. 원리상 홉스의 국가는 민주국가다. 개개 구성원들이 합의했고 그들의 의사를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시민적 자유'를 새롭게 구현하자는 사회계약론의 정수를 표현했다. 세습과 혈통에 따른 통치의 원리는 무너졌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무장하라!" 외친다. 반면 홉스는 "협약하라!" 호소한다. 무국가·무정부의 자연 상태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와 정부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다. 홉스에게 사회계약이란 '정치의 창조성'을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커다란 형상의 '리바이어던'이 들고 있는 것은 검과 활, 돌 다다. 주권은 나눌 수 없으며 한 국가 안에 두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신이 지상의 통치권을 왕과 교황에 나눠주었다는 '양검론'은 더 무리없다. 현실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자는 내란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홉스는 계급 간 이익 갈등을 자연스러운 일로 보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공유해야 할 가치를 분열시키는 "거짓 예언"과 "종교 재판"이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소득과 재산을 둘러싼 실체적 갈등보다는 ▶죄의 척결 ▶적폐 청산 ▶내란 척결 ▶친일파 청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 수호 등을 앞세워 사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시키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했다.

처벌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의 법"이



1 '리바이어던'의 속표지. 홉스는 판화기를 찾아가 디자인을 의뢰하면서, 무시무시한 괴물을 뜻하는 제목 '리바이어던'과 눈을 땔 수 없는 강렬한 그림으로 자신이 개척한 새 정치 이론을 표현하려 했다. 2 말년의 홉스 초상화. 183cm가 넘는 장신에 91세까지 장수한 철학자. 직업은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이자 비서 혹은 하인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썼고, 당시 벌어진 중요 논쟁에 참여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해야 한다. 모두가 존중하는 법과 합의된 절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을 표지에 담아내려 한 점에서 홉스는 욕심 많은 저자였다.

홉스는 자유라는 말이 남용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자유'를 '권리'로 바꿔 냈다. 홉스에 와서 철학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권리다. 이를 이해하기 좋은 사례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다. 자연 상태의 '상태'는 국가(state)와 같다. 달리 말해 자연 상태란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자연 국가'다.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못한다. 타인에게 넘길 수도 없다. 권리는 다르다. 권리는 위임하고 양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인에게 법을 부과하는 '주권(sovereignty)'이 만들어진다. 모두의 합의를 통해 만든 인공 리바이어던, 이것이 주권 국가이고 적법한 정부다.

홉스는 자유를 곧 통치 참여와 동일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자연 국가를 지향한

시민이 직접 정치하고 지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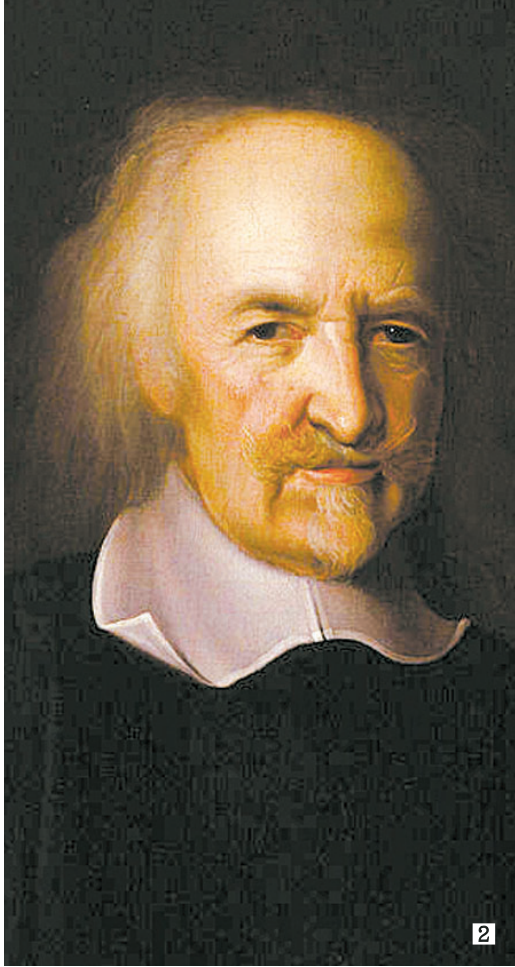
오히려 서로 목 비틀고 으르렁

위대한 괴물 만드는 믿음의 계약

만인이 늑대로 싸우는 내전 막아

처벌은 여론 아닌 법·절차 따라야

과거 얽매인 척결·청산 정치 그만



『리바이어던』

영어로 쓰인 최초의 정치철학서. 내전을 피해 파리에서 11년째 망명 생활 중이던 토머스 홉스(1588~1679)가 귀국 직전인 1651년에 출간했다.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 의회가 주도한 통치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크롬웰 독재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책을 보고 왕당파들은 "배신자"라며 분노했고, 국교회 주교와 가톨릭 사제들은 "무신론자"의 책이라며 종교 재판에 세우려 했지만, 정작 홉스 자신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이론"이자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이 시작되었다고 자신했다.



다. 홉스는 자연 국가는 공공선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개개인이 무한정의 각자도생을 추구하거나 만인이 만인의 늑대가 되는 내전에 가까워진다고 본다.

홉스는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할 만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평화로운 국가 생활을 하다가 내란에 빠져들곤 했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족할 것이다. (...)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홉스는 '시민 직접 정치'나 '직접민주주의' 주장을 경멸한다. 그것의 귀결은 자연 국가, 자연 상태다. 시민이 직접 정치하고 지배한다고 해서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목을 비틀 것처럼 으르렁대며 상대방이 추종하는 통치자의 목을 베는 일로 골몰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지 말자는 것이 '리바이어던'이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부조리하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구의 권리와 갈등하기 때문에 "논

리적으로" 부조리하다. 자유를 사랑하는 한 인간도 타인에게 늑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부조리하다. 나약한 사람도 자신의 교활함을 이용해 힘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부조리하다.

인간 본성의 이런 부조리나 모순은 없앨 수 없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의 가능한 정치사회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 즉 완전한 자유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위대한 코먼웰스(적법한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인간들 사이에서는 해적이나 산적이 되는 것을 조금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죽음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는, 힘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없다. 그리 해봐야 인간의 삶은 "외롭고 궁핍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짧다." 왜 그렇게 살아야겠냐며 홉스는,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사람을 만들자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믿음의 계약(covenants)"을 체결하자고 제안한다.

시민 보호 실패한 체제엔 충성 안 해도 돼

홉스의 주권자는 인민이 아니라 인민의 적법한 대표다. 그렇듯 만인의 합의로 만든 홉스의 정부는 대의 정부다. 자연 국가에서는 각자가 각자를 대표한다면,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

홉스는 시민 대표, 즉 정치가들에게 도덕률을 부과한다. 공평함, 겸손함, 예의 바름이 그것이다. 오만은 리바이어던의 적이다. 만용이나 허영심, 무분별은 정치의 죄악이다.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다가올 선의 크기"를 중시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 한마디로 말해 '척결 정치'나 '청산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다.

홉스는 말한다. "역사에서 부침의 격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가 있다면 그것은 1640년에서 1660년 사이를 지날 때라고, 나는 진실로 믿는다." 내란과 내전의 위험천만9한 시대에 '리바이어던'을 집필하면서 홉스는 음모를 꾸몄다.

우선 라틴어로 글을 써온 관행 대신 처음부터 영어로 썼다. 1640년에 발표된 글에서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왕정도 인정했던 반면, '리바이어던'에서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정당한 통치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체제라면 그에 대한 충성의 의무 역시 면제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적법한 정부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단의 결합체"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화정도 인정했다. 의심에 찬 왕당파의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의 크롬웰 정권으로서도 홉스를 받아들이 근거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뒤에 찰스 2세가 될 왕세자에게 필사본을 헌정함으로써 정치적 신의를 유지했다.

첫 출판본은 1651년 4월 런던에서 나왔다. 그것이 귀국용 티켓이 되어 주었다. 그 후 홉스는 죽을 때까지 영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한 철학자가 세상을 놀라게 할 책으로 시대를 견뎌 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